



## 진호국가 불공 정진대법회 입재

### 내달 8일까지 상반기 49일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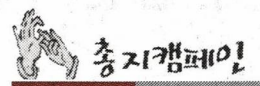
총지중 진언행자들의 정진 모습.

불교총지중은 2월 1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6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입재불사를 봉행했다.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2번 실시되며, 이번 상반기 49일불공은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호국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흥포하고 좋은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밀교 고승인 명랑법사와 혜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종조법설집에는 “49일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 음식물 남기지 맙시다.

지난해 불교계에서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10만인 동참 운동을 펼치며 ‘빈그릇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식을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양이 1년에 13,028톤(연간15조원)이 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4천억원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소각하게 되면 나오는 연기로 대기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이 전체의 53%에 달한다. 나머지 47%는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먼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이 바로 음식물을 내다버리는 주된 무대임을 알 수 있다.

15조원의 경제적 의미를 따지면 우리나라 한해 식량 수입액의 1.5배에 해당되고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30년 동안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라도 ‘연기(緣起)’의 가르침을 아는 불자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쌀 한 톨도 못 증생계의 큰 은혜로 결실되어짐을 우리는 안다. 그 한 톨을 위해서 못 생명들이 살아가던 들판을 밀어 논을 만들고 냇가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아 물을 대었다. 이렇듯 못 생명의 희생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식량이고 먹거리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라는 연기의 가르침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종교를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생각해도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면 경제적 이익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청정한 국토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 이 달의 종조법설

상대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고칠지니 나에게도 무시 이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어 모은 큰 허물이 수미산과 같을지라 내가 먼저 회사하고 그와 같은 큰 허물을 다시 짓지 않겠다고 참회하고 서원하면 나는 도로 복이 되어 일체 고통 소멸되며 내 허물이 없어질 때 저 허물 없어진다.

### 종조법설, 음성으로 듣는다

#### 새로운 수행법 개발도

그동안 책으로만 접해 왔던 원정성사의 법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종조탄신 100주년과 창종 35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일이 나왔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일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 이규향 씨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다.

이번 작업을 주관한 법경 정사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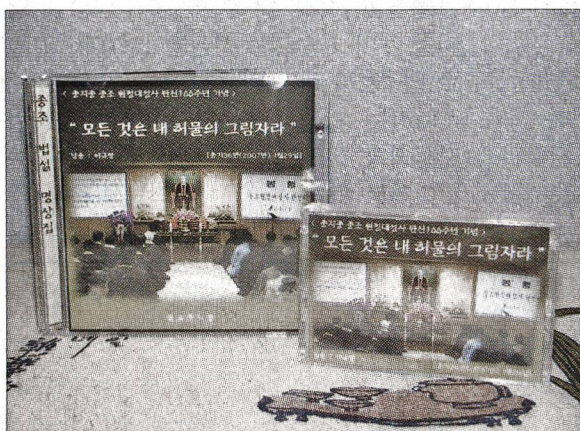
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 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총지중은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일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총지중은 종조탄신 100주년 올해 종조탄신 기념대법회와 종조 육필원고 발간을 비롯한 기념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기념예술제와 학술세미나 등 원정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총지중은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포교 활성화를 기하고 종단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 대구 개천사 경북지역 첫 만다라 장엄 불사

#### 변화감 주고 화려미 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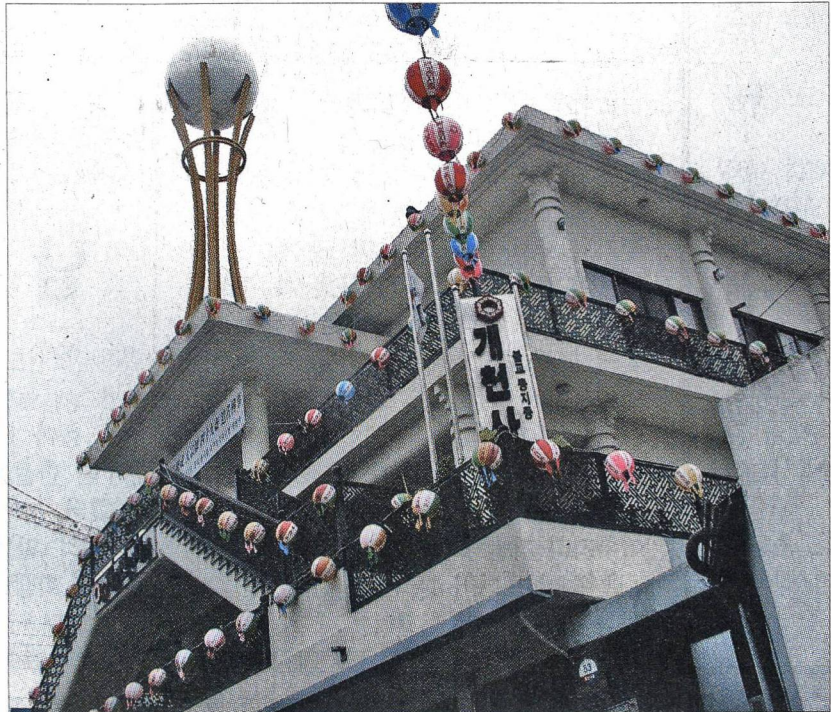
총지중 대구 개천사(주교:경원)가 불단장엄 불사를 통해 정통 밀법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에 있다.

이번 불단장엄은 단순한 구조의 불단을 없애고, 단장계, 대장계, 금강계 만다라 봉안, 본존의 변화 등을 통해 장엄하고 웅장하게 조성된다.

개천사 주교 경원 정사는 “불단장엄을 통해 교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개천사에서 불공해 해탈을 이루시기 바라는 서원으로 불단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곳 개천사에서 서원이 성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불단장엄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서원과 후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지중 사원중에서 대구, 경북지역에 만다라가 봉안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다라에는 대장계, 금강계의 수천 불보살들이 표현되며,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과 해탈, 소원성



대구 개천사 외관.

취를 이루겠다는 서원이 담겨져 있다. ◇후원문의 : 개천사 053-425-7910, 경원 정사

## 졸업과 입학울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 |       |       |       |
|-------|-------|-------|
| 동해중학교 | 이 사 장 | 김 현 우 |
|       | 관리위원장 | 서 진 업 |
|       | 교 장   | 박 수 현 |
|       | 운영위원장 | 정 관 호 |
|       | 학부모회장 | 권 점 숙 |
|       | 총동창회장 | 김 수 호 |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사설

양로시설과 납골시설 건립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생로병사의 윤회 굴레속에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윤회사상은 사후의 영가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불교는 49재, 영가천도 등 사후의 영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고,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인과법과 인연법을 주요 교리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교리를 실천하는 방편중의 하나는 노인을 봉양하고, 사후 영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신도분포를 보면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지 못하고 대부분 고령 불자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 종단도 예외는 아니다.

즉 고령의 교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종단에 위탁하려는 교도들이 많다.

그러나 종단은 노보살들을 모실 수 있는 양로시설과 고인의 유골을 안치할만한 설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사후에는 영가를 다른 종단의 사찰에 모신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교도들 가족 중에도 우리 종단이 납골 시설이나 영가를 모실만한 설비가 이루어진다면 당사이라도 우리 종단 시설로 옮겨오고 싶다고 하는 교도들이 많다. 이렇듯 노인양로시설과 납골시설의 존재여부는 종교단체의 사찰을 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천주교의 신도가 몇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 신도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교리와 승직자의 자질문제보다도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과 장묘문화, 납골시설의 혜택을 신도들에게 제공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종단에서 수 십 년 동안 불공한 교도가 천주교로 개종한 경우가 있는데 천주교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와 신도들로 구성된 단합된 장묘문화, 사후의 납골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그동안 종단에서는 노인양로시설과 납골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하여 왔으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재 부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결핍,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투자되는 재정적 부담감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원을 건축하는데 있어 매년 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하며 신축하여 왔다.

그동안의 정책에 대하여 냉철하게 평가함으로써 교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가까운 곳만 보지 말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 현재의 재정적 부담감과 인식이 부족하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 나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배우며 자기의 것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열성과 의지력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력의 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수명을 연장하고 있으며, 노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에 예산을 증액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볼 때 종단에서는 노인양로시설과 납골시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없다. 종단의 승직자 및 종사자, 교도들의 일치된 서원과 발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총지종 새 집행부 선출

효강 종령, 지계와 화합 강조



새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

지난 달 원승 종사가 15대 불교 총리장으로 선출된 이후 총지종을 이끌어 갈 새 집행부가 꾸려졌다. 총지종은 2월 13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총무부장에 개천사 경원 정사, 교정부장에 개천사 경원 정사, 사회부장에 개천사 경원 정사, 사무국장에 개천사 경원 정사, 통리원 사

무국장에 총지사 법일 정사를 각 임명하고, 재무부장 시정 정사는 유입시켰다. 또 법장원 법경 정사는 정각사 파견 근무를 명했다. 한편 같은 날 있던 신임 통리원 장 통리원 선도원 전수, 사회부장 윤천사 인선 정사, 통리원 사

무는 지계와 성실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맡은 바 업무에도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종령 정사는 "화합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다면 종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발령

총무부장 경원(최순일) 정사 재무부장 시정(이재호) 정사



총무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 건설 위원에 명함.



재무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 건설 위원에 명함.

교정부장 선도원(신순덕) 전수



명함.

사회부장 인선(강재훈) 정사



사회부장에 명함. 원의회의원에 명함. 전당 건설 위원에 명함.

사무국장 법일(윤승호) 정사



총지사 근무 및 통리원 사무국장을 명함.

정각사 법경(김홍배) 정사



통리원 근무를 명함. 통리원 교정부장 및 사무국장을 명함. 원의회의원을 명함. 전당건설 위원을 명함. 정각사 파견근무를 명함.

알림방

- 3월 29일 개천사에서 수성 대종사 3주기 추신불사가 봉행됩니다.
통리원 배공주 교무의 어머니 이금화 님(65)께서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니다.
3월 5일부터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3월 3일 오전 10시 동해중학교 입학식이 거행됩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새해 불공을 잘 마치고 며칠이 지난 1월 어느 날 배낭 메고 아이젠과 설과대, 스틱 등을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겨울 산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고 당당하게 출발했다. 이번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꼭 보고 오리라. 눈 속에 파묻힌 한라산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고 눈꽃이 핀 나뭇가지 사이로 노루가 살포시 얼굴을 내민 모습은, 눈요정들의 세계에 온 듯한,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잠시 나 자신을 잊게 했었다. 그 때의 환상은 두고 두고 잊을 수가 없었다.

도 높아 눈꽃이 피지 않고, 아름다운 눈요정들의 세계도 볼 수 없었다. 조금은 실망스러웠지만 백록담에 오르려는 한가지 목표로 쉬지 않고 계속 올라 갔다. 호흡이 가빠 오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은 점점 정상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때,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걸음을 멈추고 나 보다 더 힘들어 하고 있었다. 기다려 가며 같이 등반을 했다. 산악회

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친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백록담 등반인데... 이제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잠시 망설였다. 내려 가는데 3-4시간 가까이 걸리는 길을 친구 혼자 어떻게 내려 가게 할까? 나는 친구를 선택 했다. 우리는 그 길로 내려오지 않고 친구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르기로 했다.

같았다. 날씨도 화창하고 포근했다. 구름이 저 아래에 운해를 이루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은 다시 백록담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조금 가다가 친구가 오늘을 안되겠다고 했다.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즐기면서 내려가기로 하고 올라 올 때 보지 못했던 나무와 풀, 돌 등을 보며 미리 준비해 간 비닐로 썰매를 타며 내려 왔다. 친구는 자기 때문에 내가 백록담 등반을 포기했다며 내려오는 내내 미안해 했다. 나도 힘들어서 포기 했다면 괜찮다고 위로 했다. 여러 날이 지난 지금도 아쉽지만 그때의 결정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를 위해 결단을 내린 내가 스스로 대견했다. 백록담을 오르지 못한 아쉬움보다 내가 타인을 위해 배려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를 두며 가슴 따듯해짐을 느꼈다. 이 일로 친구보다 내가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배려는 남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도정(총지사)

남 위한 배려, 가슴 따듯한 일

회장님께서도 계속 격려해 주셨다. 평소엔 등반을 잘 하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드디어 친구는 한걸음 떼어 놓기조차도 힘들다고 했다. 친구는 포기 한다고 하며, 나 보고 빨리 일행을 따라 등산하라고 한다. 산악회 회장님도 빨리 산행을 계속 하라고 하신다. 산행을 포기 하고 다시 내려 가면 버스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커피도 마셔 가며 쉬엄쉬엄 올라갔다. 드디어 백록담 바로 아래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했다. 대피소 주위에 펼쳐진 산은 마치 분재 농원 같았다. 물론 우리 일행들은 이미 떠난 뒤였다. 대피소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가져간 도시락과 간식을 먹고 잠시 쉬었다. 힘이 솟는 것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7년 1월 27일부터 2007년 2월 27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Columns include: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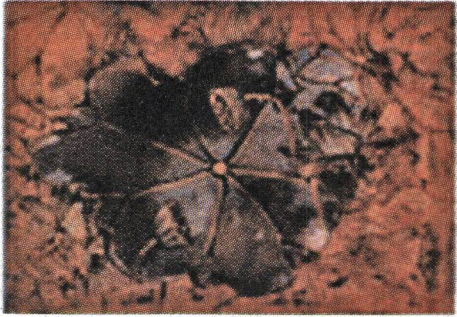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이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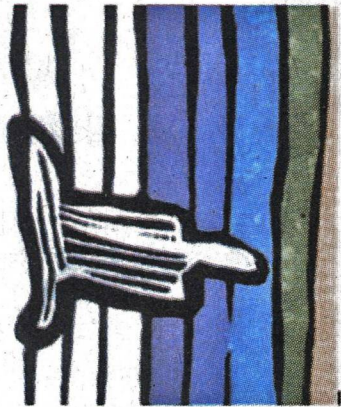
말



"작은 술 하나에 떡을 찌면 세 명이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 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찌기 서 계시던 노승님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지."

-송고승전(宋高僧傳)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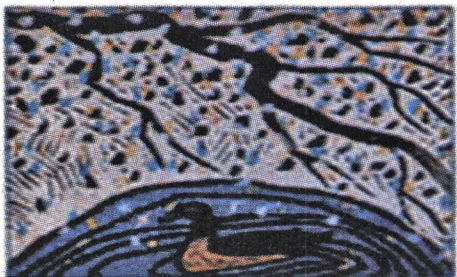
인내



지금도 나는 때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다른 이에게 심한 말을 한다.  
그리고 잠시 후 화가 가라앉으면 당혹감을 느낀다.  
부정적인 말이 이미 입 밖으로 튀어 나왔으니 거둬들일 방도가 없다.  
말은 내뱉어지고 소리는 존재하지 않건만 말의 효과는 계속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밖에 없다.  
그게 옳지 않은가?

-달라이 라마

나누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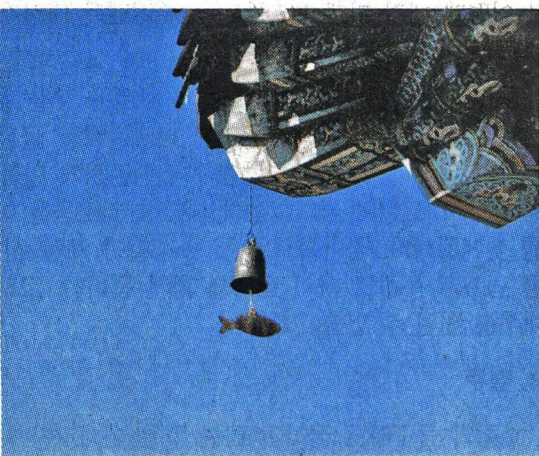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며 욕을 퍼 부을 때 나는 침묵과 인내로 그를 다스린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대개 보면 자기의 주장과 행동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그가 두렵기 때문이요, 동등한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이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까이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내이니라.

어느 사람이 대중을 향하여

-잡아함경(雜阿含經) 중에서

이달의 명상

◎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니, 그러서 성인이 말씀하시되「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하셨느니라.



◎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하셨느니라.

◎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원림(園林)을 삼아라」하셨느니라.

◎ 일을 피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여러 겹을 꺾어서 일을 성취하라」하셨느니라.

◎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원림(園林)을 삼아라」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중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말고

~전수경면 제 13화~

글.그림/정수일

두 번째로 원력홍심 상호신이란...  
히- 안 그래도 온몸이 빠근한데 홍삼...?  
허허허... 보약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군.  
흔히 말하는 욕심이란 자신만을 위한 사욕이죠. 하지만, 원력이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마음이 깃들인 큰 뜻이죠.  
그...그게 그렇게 되나요?  
하하하! 그러시다면 그냥 편하게 불.보살님의 원만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 또 뱅뱅돈다.  
허허허! 그렇습니다. 천개의 팔로 장엄하여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 됩니다.  
호호... 오늘 좀 들어가네.  
천비(千臂)란 천수천안관자재보살... 할 때의 그 천수(千手)와 같은 뜻이지요?  
그 다음으로 "천비장엄보호지"란...  
앗! 그 부분은 좀 알 것 같아요, 대성사님.  
전에도 늘 말씀듯이 중생들의 고통은 그 수가 한량없기 때문에 "천비"또는 "천수"란 그 만큼 많은 손이 필요하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중생의 고통과 수많은 소원을 들어주려는 대자비심과 지혜와 원력으로 장엄된, 즉 꾸며진 마음이 곧 "천비장엄" 이랍니다.  
대성사님,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복장을 하고 계시던데 돈이 많아서 그런거예요? 나...배고픈데 밥 좀 사주시지...  
이이그... 그 문제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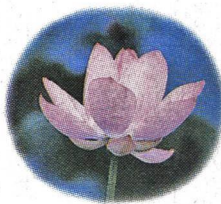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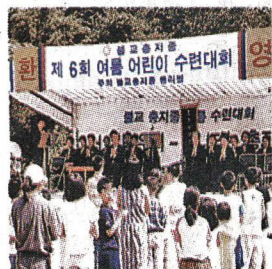
회원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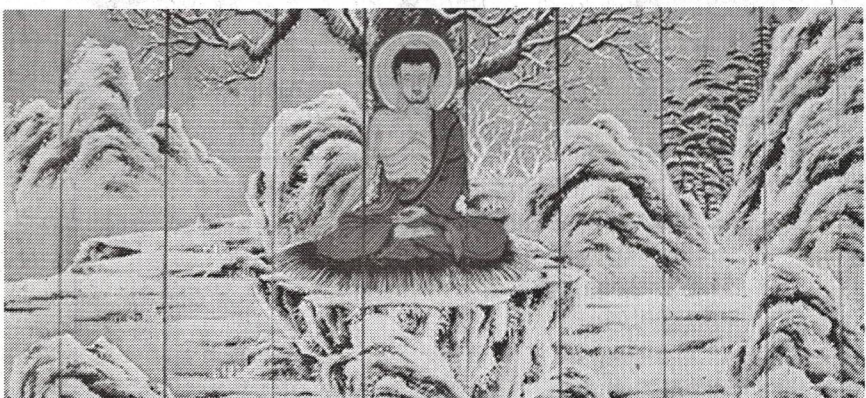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한국불교미술 ⑧

# 부처님의 생애 - 팔상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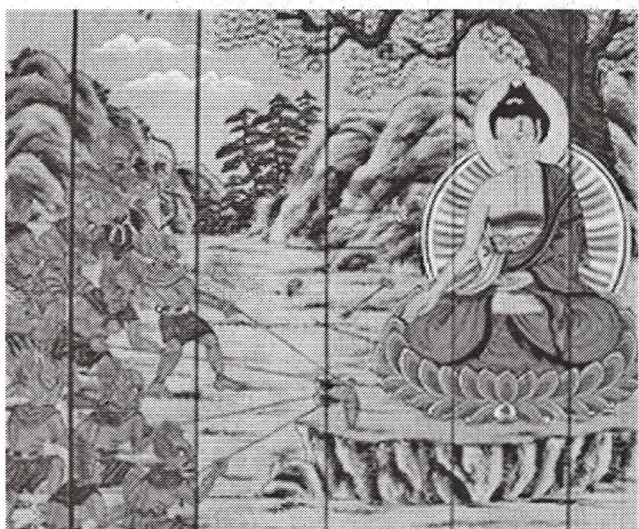
팔상도 5 설산에서 수도하다 (설산수도상 : 雲山修道相)



출가한 싯다르타는 7일 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뒤 가르침을 받은 만한 숲 속에 사는 은둔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혹은 이를 사흘에 한 끼씩 먹으며 물, 불, 태양에 경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싯다르타에게 북쪽에 살고 있는 세 분의 스승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세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마침내 그들의 경지까지 이르렀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지는 싯다르타가 찾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경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홀로 깊은 설산으로 들어가 6년 동안 고행과 단식에 몰두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과 강렬한 햇살에도 끄떡하지 않았으며, 피부는 모두 말라가고 뼈가 고스란히 드러날 정도로 고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고행이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강물에 목욕하고 근처 마을에서 올라온 수자타라는 처녀가 공양한 우유죽을 먹고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리수 아래 자리를 잡고 정각(正覺)을 얻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결심을 한 뒤 고요히 명상에 잠겼습니다.

팔상도 6 보리수 아래서 온갖 장애를 극복 (수하랑마상 : 樹下降魔相)



그 때 애육과 죽음의 신(神)인 마왕 파순이 싯다르타를 공격했습니다. 싯다르타가 정각을 성취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마왕 파순이 위력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왕의 공격은 긴 밤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온갖 악마들, 짐승과 괴물들을 총동원하여 화살과 피바람을 날리며 싯다르타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보리수 아래 고요히 앉은 싯다르타를 동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패배한 마왕은 이제 자신의 딸들로 하여금 싯다르타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싯다르타를 둘러싼 여인들은 음악 연주하며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싯다르타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허깨비임을 일깨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여인들을 가리키자 추한 노파로 변해 버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마왕의 세력들은 사분오열되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보리수 아래 정좌(正坐)한 싯다르타는 마침내 번뇌의 불꽃과 생사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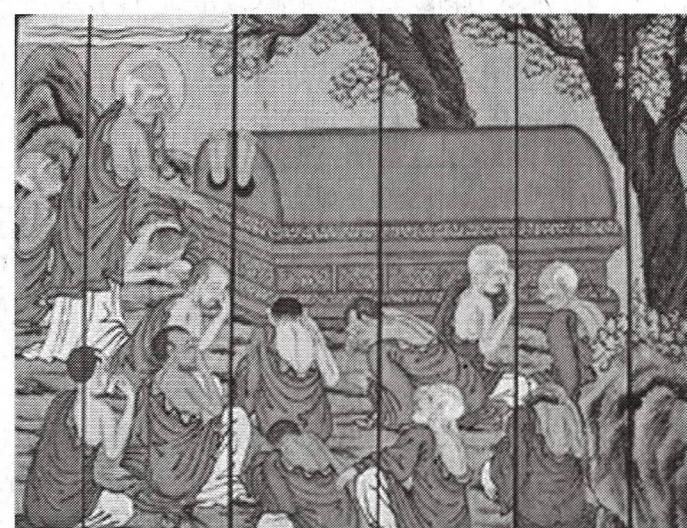
팔상도 7 전법의 길을 나선 (녹원전법상 : 鹿苑轉法相)



싯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싯다르타가 아닙니다. 그는 '깨달은 자', 곧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鹿野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날 고행을 포기할 때까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과 재회하여 그들을 위해 최초의 설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속적인 쾌락의 삶과 육체를 확대하는 고행의 삶의 양극단을 떠나 올바른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 '팔정도(八正道)' 그리고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되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사성제(四聖제)'의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불교는 불(진리를 깨달은 스승)·법(그 가르침)·승(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삼보(三寶)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녹야원에서 첫 설법에서부터 비로소 삼보의 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팔상도 8 사라나무 아래서 열반에 들다 (쌍림열반상 : 雙林涅槃相)



부처님은 45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 하였습니다. 이제 80의 나이는 부처님께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 했음을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소유하지 않고 맨 손, 맨 발로 전법의 여행을 하였던 부처님은 고향인 카필라로 돌아가던 중 쿠시나가라의 두그루 사라나무 아래서 육신의 옷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길에서 탄생하여, 길을 찾고(求道), 길을 설파하다가, 마침내 길에서 열반 하였습니다. 슬피 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설했습니다. 누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후 2,500년의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동양의 밝은 등불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으며, 오늘날에는 물질문명과 이원론의 한계에 부딪친 서구인들에게도 서서히 지혜의 등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총기동의보감

##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김장규 원장

### 1.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어 줍니다.

#### 1)운동종류

처음부터 격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걷기나 수영과 같이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有酸素運動) 즉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 보디빌딩, 윗몸 일으키기, 다이빙, 승마, 경쟁적 구기 경기 등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적당치 못한 운동입니다.

인슐린을 맞는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 부위의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등산, 수영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운동시간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른 아침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의 예방을 위하여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경우 운동은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각에 실시하며 식후 30분에 시작하여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3)운동의 강도

적절한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는 동안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운동의 횟수

운동은 매일 조금씩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적어도 일주일에 3-4회는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의 횟수가 일주일에 3회 이하이면 운동의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 2. 금연

금연의 방법에는 본인의 의지로 담배를 끊는 방법, 의사와의 상담,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 등을 사용하는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우선 명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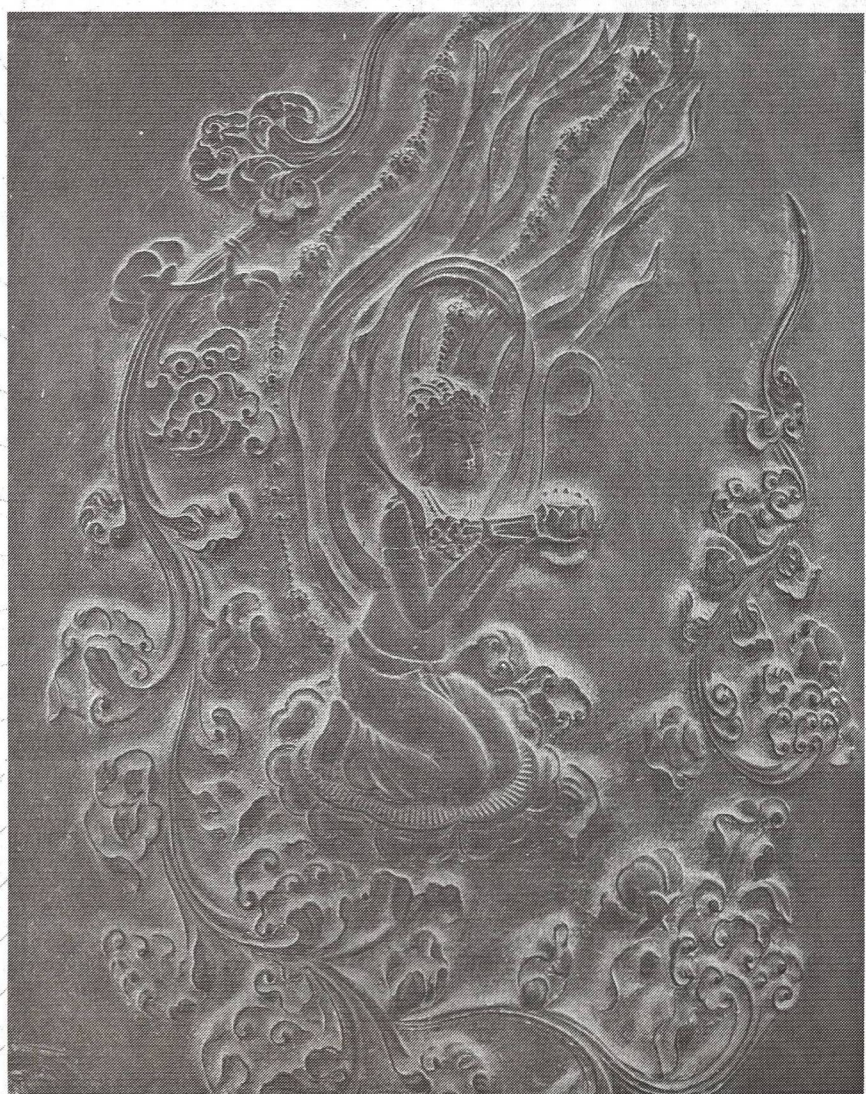
- 1) 흡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변에서 제거한다.
- 2) 주위사람들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다.
- 3) 특정일자를 정하여 단번에 끊어야 성공한다.

그렇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담배 안의 니코틴이란 물질은 중독성이 있어서 흡연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담배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의 금단현상이 나타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찾게 됩니다. 금단증상은 첫 2~3일이 제일 심한데, 대부분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러나 첫 일주일만 지나면 대부분 견딜 수 있습니다.

### 3. 절주

소량의 음주마저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량의 연일 음주는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잔으로 하루에 1, 2잔을 마시는 것을 적절하다고 하며, 신체가 작은 여성은 하루에 1잔으로 제한합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천천히, 그리고 요령껏 마시며 안색이 변하거나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숨이 가쁘면 심장에 무리가 된다는 징조이니 그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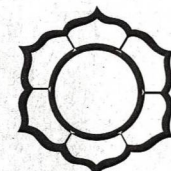
# 기획 인쇄물 전문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리플렛
- 팜플렛
- 사 보
- 서적류(양장,무선)
- 다이어리
- 명부(수첩)
- 쇼핑백
- 각종봉투
- 카렌다
- 앨범
- 샘플북
- BOX류
- 행가,행택
- 스티카,라벨
- 청첩장
- 연하장
- 메뉴얼
- 현수막
- 상패,트로피
- 판촉물

기타 일반 인쇄물 및 광고 판촉물 일체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TEL : 2277-2900(대), 2277-3639  
 FAX : 2277-3668  
 H·P : 018-361-9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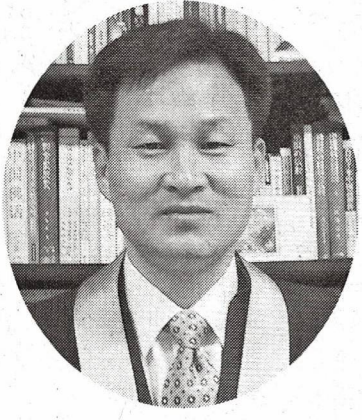
**공장**  
 서울·중구 인현동2가 215  
 TEL : 2265-5356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ID-dong455667  
 PW-455667



**동림기획**  
**Orient Communications**  
 代表 金東雲 (佛名:修正)  
 관성사 교도

지상설법

정견(正見)을 바로 세우자



화 령 (중앙교육원장)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견해라는 것은 사물을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바른 통찰력과 생각을 말합니다.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욕을 먹

고 사회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하고 사태에 대처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도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견해가 달라야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고 대중들을 이끌더라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견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견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도리어 그 사람의 의뢰심만 키워서 그 사람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이처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의 명운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견해는 반드시 불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견을 가진다는 것은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바른 견해

를 가지기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공명정대한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 그 집단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며 안정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어떤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란 불교적인 바른 세계관, 인생관으로서의 연기의 도리와 삼법인,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분별성제경(分別聖諦經)>에 보면 정견에 대하여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견인가? 이른바 성인의 제자는 고를 고로 생각하고 집을 집이라고 생각하며 멸을 멸이라고 생각하고 도를 도라고 생각할 때, 혹은 본래 지은 바를 관찰하거나 모든 행을 생각하기를 배우며 모든 행의 재환을 보거나 열반과 그치어 씀을 보며, 혹은 집적이

없는 착한 마음의 해탈을 생각하여 관찰할 때 두루 가리어 가진 법을 결정하며, 두루 보고 관찰하여 흰이 안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견이란 사성제에 대한 관찰을 여실히 알며 업과 행, 그리고 해탈에 대하여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정도에서도 정견을 가장 첫머리에 놓는 이유는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던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정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정진을 하게 되면 아집과 독선만 기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서도 무게를 잡는 율사들 중에는 곁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찬바람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계율 그 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별성제경>에서도 설한 것처럼 불교도로

서 바른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 마디로 불교공부의 기본이 되는 사성제를 바르게 알고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추구하고 항상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살피고 치우침이 없는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명예에 집착하며 성내는 마음을 지니고서 바른 견해를 지니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견을 지니기 위해서는 마음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자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정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마음자리가 바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견을 지닌다는 것은 도의 전부를 이룬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첫머리에 정견을 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공부를 하려면 먼저 바른 견해를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정견이 없이 수행을 한다면 그야말로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진리

부처님께서 파탈리푸타로 가시던 도중 라자카하에서 멀리 않은 왕원에서 쉬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닦는 이는 반드시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오랫동안 바른 길에서 벗어나 생사에 매여 헤매느라고 쉴 새가 없다. 어떤 것이 네 가지 진리인가.

첫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이니 이것을 고라 한다. 둘째는 괴로움은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니 이것을 집이라 한다.

셋째는 괴로움과 집착이 없어져 다한 것이니 이것을 멸이라 한다.

넷째는 괴로움과 집착을 없애는 길이니 이것을 도라 한다. 괴로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먼 길을 헤매어 생사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 모든 것이 괴로움임을 알 것이니, 괴로움이란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번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오온으로 된 이 몸이 모두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인 줄 알고 애욕의 집착을 끊으면 눈을 얻었다고 하리니, 이 생을 마치고는 뒤에 다시 괴로움이 없게 된다. 집착 때문이라 함은 애욕을 따라 생긴다는 것이니, 괴로움과 집착을 모두 없애고 그 길을 따라 진리를 행하여 눈을 얻으면 이 생을 마친 뒤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미 진리를 보아 도의 눈을 얻은 이에게는 다시 나고 죽음이 없다. 그리고 도를 얻으려면 여덟 가지 행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마음이 다하여 여러의 가르침을 듣고, 둘째는 애욕을 버려 갈등을 없애며, 셋째는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 같

은 것을 저지르지 않고, 넷째는 속이고 아첨하며 나쁜 말로 꾸짖는 일을 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질투하고 욕심내어 남들이 믿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여섯째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공이고 무아임을 생각하고, 일곱째는 몸의 냄새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여덟째는 몸에 탐착하지 않고 마침내는 흠으로 돌아갈 줄 아는 것이다. 지난간 세상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았고, 앞으로 올 부처님들도 이 진리를 볼 것이다.

세속적인 은혜와 사랑을 탐하고 바라거나 혹은 세상의 부

중하므로 재산이 줄어들고, 몸을 위태롭게 하고 도를 잃게 되며,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고 죽을 때에 누우치게 되며, 추한 소문과 나쁜 이름이 널리 퍼지고, 스스로 방종하므로 죽은 뒤에는 삼악도에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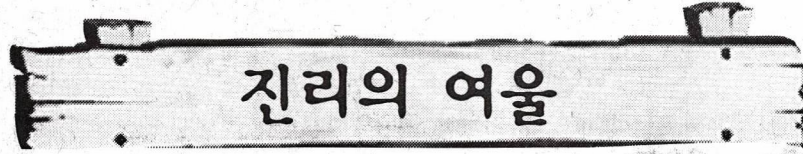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을 조복받아 방종하지 않으면 다섯 가지 덕을 갖추게 된다. 검소하고 절약하므로 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도의 뜻에 가깝게 되며, 사람마다 우러러 공경하고 죽을 때도 누우침이 없으며, 덕망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검소하고 절약하므로 죽은 뒤 천상이나 복된 곳에 태어

이 몸으로 삼매를 얻고자 하면 부지런히 깨닫기를 구해 이 생이 다하도록 청정한 도에 들어가라. 마땅히 실행할 것을 행하면 죽은 뒤에 다시 윤회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아난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요긴함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계를 지니고 선정을 닦아 지혜를 깨달아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명예가 드날리게 될 것이다.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잡된 생각이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일러 해탈이라 한다. 이 계행이 있으면 저절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밝아지리니, 이를테면 흰 천에 물감을 들여야 그 빛이 더욱 선명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도를 어렵지 않게 얻을 것이고, 일심으로 부지런히 닦으면 이 생을 마친 후에는 청정한 도에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하면 스스로 이 몸을 버리고 다시 나지 않은 줄을 알리라. 만약 계, 정, 혜의 행을 갖추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마음이 저절로 열리어, 문득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들의 세상을 보게 되고, 온갖 중생들의 생각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시냇물이 맑으면 그 밑에 모래와 돌자갈의 모양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맑으므로 보고자 하는 것이 다 나타난다. 도를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치 물이 흐리면 그 속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을 깨끗이 지니지 못하면 세상에서 죽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스승이 보고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생각을 잡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도를 스스로 얻을 것이다. 여래는 청정함을 가장 즐겨워한다." <장야함 반니원경>



진리의 여울

귀 영화와 명예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는 끝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얻지 못한다. 길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마음이 깨끗해야 길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이 청정하여 다섯 가지 계율을 범하지 않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만약 지옥, 아귀, 축생의 길을 끊으려거든 일심으로 여러의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어 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래가 중생을 나고 죽는 데서 해탈케 하려고 바른 길을 열어 보였으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생각해 보아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부처님은 아난과 함께 파탈리푸타에 이르러 성 밖 어떤 나무 아래 머무셨다. 그 곳 바리문과 거사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부처님 계신 데로 모여들었다.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앗을 방식을 가지고 혹은 물병과 등잔을 들고 와서 예배하였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사람이 세속에서 함부로 탐욕을 즐기면 다섯 가지 소모되는 현상이 있다. 스스로 방

난다. 사람이 방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 잘 생각해서 행하여라." 부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시니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장야함 반니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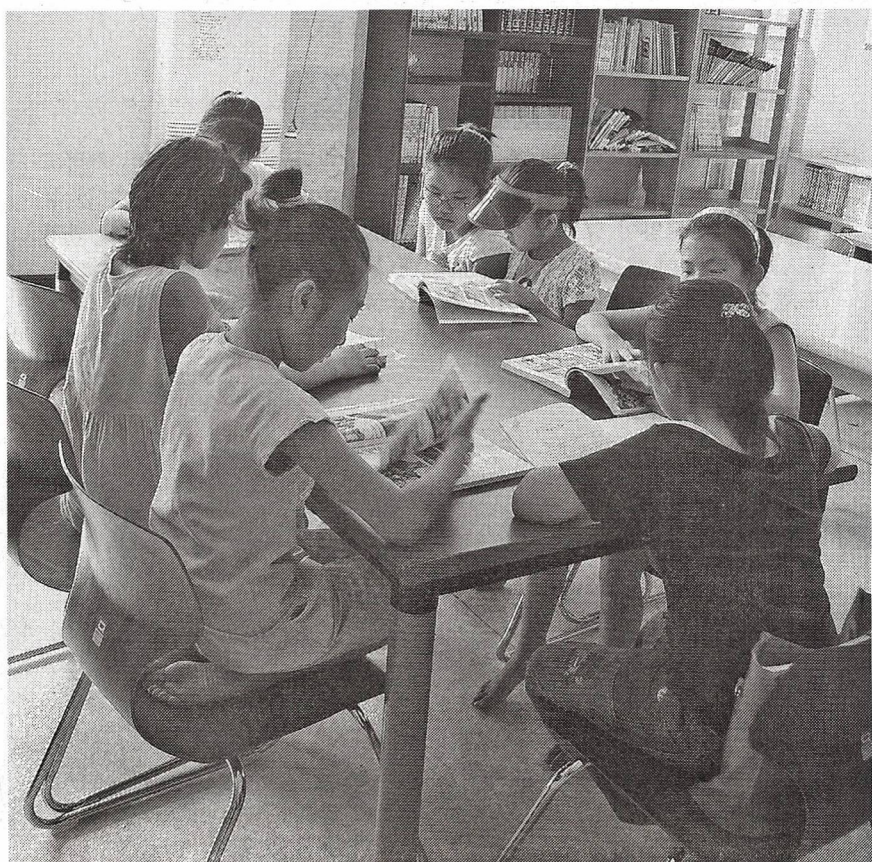
◆계, 정, 혜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폴리성 북쪽의 한 나무 아래 머무르시며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구하여라.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사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며, 지혜를 구하는 이는 애욕에 매이지 않으므로 하는 일에 걸림이 없다.

계, 정, 혜가 있으면 덕이 크고 명예가 널리 퍼지리라. 또 세 가지 허물을 떠나면 마침내 아라한이 될 것이다. 지금의

충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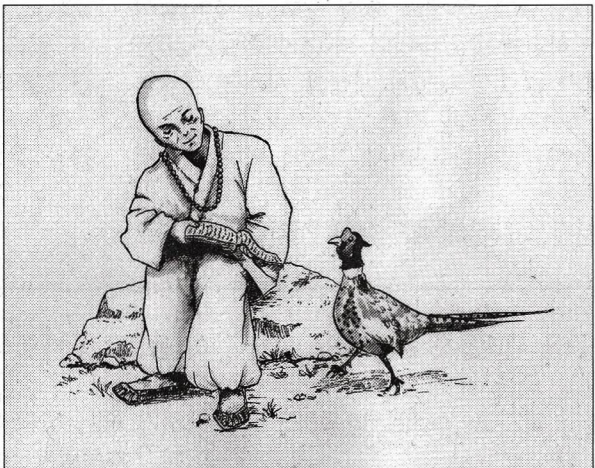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0705

불교설화 <8>

법화경을 읽고 인도환생한 평

동진(東晉) 때 법지(法志)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여항산(餘杭山)에 암자를 짓고 아침저녁으로 법화경을 외워 읽기도 게으름이 없었다. 이 때 암자 옆에 보금자리를 치고 있는 꿩 한 마리가 스님의 경 읽는 소리가 들리면 곧 날아와서 스님의 옆에 앉아, 마치 모시고 서서 경을 듣는 것 같았다. 이리기를 7년, 하루는 꿩이 매우 지친 모습으로 스님에게 왔다. 스님이, 「너는 비록 날짐승이지만, 능히 경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짐승의 몸을 벗고 나면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위로해 주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꿩이 죽어 스님이 묻어 주었다. 그날 밤에 스님이 잠이 들려 하는데, 꿈에 한 어린이가 나타나서 두 번 절하고, 「저는 전에 스님 곁에 있던 꿩입니다. 스님의 경 외우시는 것을 들은 인연으로 지금산 남쪽 왕씨(王氏)네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겨드랑 아래 숨털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 법지스님이 그 집을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왕씨 집에서 아들을 낳아 재를 울리고 있었다. 스님이 막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대뜸, 「우리 스님 오신다.」 하여 모두들 기이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법지스님께 보였다. 스님은 아기의 옷을 벗겨 두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 밑에 꿩의 숨털이 세 줄로 나 있었다. 아이는 입급 살 때 출가하겠다고 해서 부모가 허락하여 산으로 들어가 열다섯 살에 머리를 깎았다. 겨드랑 밑에 꿩 털이 있으므로 이름을 담익(曇翼)이라 하였는데, 법화경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다. 스님이 되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를 물어 종승(宗丞)을 확고하게 깨닫고 큰 번재(辯才)를 얻었다. 동으로 회계(會稽)지방을 유력(淺歷)하여 진망산(秦望山)에 이르렀다. 그는 돌을 깨고 띠를 띠서 이 산에 오래 머물러 있기로 하고 오로지 법화경만을 열 두 해나 계속해서 외웠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질 무렵에 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흰 꿩 한 마리와 마늘 두 통이 들어 있는 대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나타나 스님의 앞으로 와서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저는 산 아래 아무개 딸인데 산에 들어와 고사리를 뜯다가 호랑이를 만나 쫓겨 왔어요.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나무가 우거져서 이리와 승냥이가

마구 날뛰니 돌아가다가는 목숨이 온전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하룻밤 묵어 갈 수 없을까요?」 스님은 쓸데없는 협의를 받을 것이라고 굳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으나, 여인이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애절하게 흐느껴 울므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풀을 깎 자리를 여인에게 내어주고는 곧 돌아와서서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삼경쯤 되어 여인이 배가 아프다고 신음하면서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약을 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래도 아프다고 더욱 울부짖으며, 「스님께서 제 배를 좀 문질러 주시면 아픈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만약 문질러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요. 불법은 자비와 방편으로 근본을 삼는다는데, 스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제가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고 애절했다. 스님은, 「나는 대승계(大乘戒)를 받은 중인데 어떻게 여인의 몸을 만진단 말이요.」 하고 여전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인의 애절하고 간곡한 청을 끝내 물리칠 수가 없어서 석장(錫杖)의 머리를 수건으로 싸가지고 떨쳐잡지 않아서 여인의 배를 문질러 주니, 잠시 후에 여인이, 「이젠 괜찮아요.」 하고 이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에 여인이 암자에서 뜰로 나오자 채색 옷은 상서로운 구름으로 변하고, 뺨지는 흰 코끼리로 변하고, 마늘은 두 송이 연꽃으로 변했다. 여인은 연꽃을 손에 들고 코끼리에 올라앉아 구름을 타고 허공으로 올라가, 「나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다. 네가 오래지 않아 내게로 돌아올 것이므로 특별히 와서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네 마음이 불속의 달과 같아서 더럽힐 수가 없구나.」 하고는 훌연히 멀어져 갔다. 이 때 하늘에서 하늘 꽃이 비 오듯 내리고, 땅이 크게 진동했다. 이 날 태수(太守) 맹공(孟公)이 새벽에 일어나 밖에 나왔더니, 훌연히 남쪽에 상서로운 구름이 엉겨 있고 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는데, 구름 아래에서는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려 왔다. 하도 기이하여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찾아가 스님을 만나, 보현보살이 스님을 시험해 보고 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태수는 곧 이 사실과 스님의 도행을 나라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칙명으로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법화사(法華寺)라 하였다. 때는 진(晉)나라 안제(安帝)의 의희(義熙) 13년(서기 417)이었다. - 최명해(총지사)



타나서 두 번 절하고, 「저는 전에 스님 곁에 있던 꿩입니다. 스님의 경 외우시는 것을 들은 인연으로 지금산 남쪽 왕씨(王氏)네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겨드랑 아래 숨털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튿날 아침 법지스님이 그 집을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과연 왕씨 집에서 아들을 낳아 재를 울리고 있었다. 스님이 막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대뜸, 「우리 스님 오신다.」 하여 모두들 기이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법지스님께 보였다. 스님은 아기의 옷을 벗겨 두루 살펴보니 과연 겨드랑 밑에 꿩의 숨털이 세 줄로 나 있었다. 아이는 입급 살 때 출가하겠다고 해서 부모가 허락하여 산으로 들어가 열다섯 살에 머리를 깎았다. 겨드랑 밑에 꿩 털이 있으므로 이름을 담익(曇翼)이라 하였는데, 법화경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웠다. 스님이 되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를 물어 종승(宗丞)을 확고하게 깨닫고 큰 번재(辯才)를 얻었다. 동으로 회계(會稽)지방을 유력(淺歷)하여 진망산(秦望山)에 이르렀다. 그는 돌을 깨고 띠를 띠서 이 산에 오래 머물러 있기로 하고 오로지 법화경만을 열 두 해나 계속해서 외웠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질 무렵에 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흰 꿩 한 마리와 마늘 두 통이 들어 있는 대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나타나 스님의 앞으로 와서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저는 산 아래 아무개 딸인데 산에 들어와 고사리를 뜯다가 호랑이를 만나 쫓겨 왔어요. 날이 이미 저물어가고 나무가 우거져서 이리와 승냥이가

마구 날뛰니 돌아가다가는 목숨이 온전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하룻밤 묵어 갈 수 없을까요?」 스님은 쓸데없는 협의를 받을 것이라고 굳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으나, 여인이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애절하게 흐느껴 울므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풀을 깎 자리를 여인에게 내어주고는 곧 돌아와서서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삼경쯤 되어 여인이 배가 아프다고 신음하면서 스님을 쳐다보았다. 스님은 약을 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래도 아프다고 더욱 울부짖으며, 「스님께서 제 배를 좀 문질러 주시면 아픈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만약 문질러 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요. 불법은 자비와 방편으로 근본을 삼는다는데, 스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제가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계시겠어요?」 하고 애절했다. 스님은, 「나는 대승계(大乘戒)를 받은 중인데 어떻게 여인의 몸을 만진단 말이요.」 하고 여전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인의 애절하고 간곡한 청을 끝내 물리칠 수가 없어서 석장(錫杖)의 머리를 수건으로 싸가지고 떨쳐잡지 않아서 여인의 배를 문질러 주니, 잠시 후에 여인이, 「이젠 괜찮아요.」 하고 이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에 여인이 암자에서 뜰로 나오자 채색 옷은 상서로운 구름으로 변하고, 뺨지는 흰 코끼리로 변하고, 마늘은 두 송이 연꽃으로 변했다. 여인은 연꽃을 손에 들고 코끼리에 올라앉아 구름을 타고 허공으로 올라가, 「나는 보현보살(普賢菩薩)이다. 네가 오래지 않아 내게로 돌아올 것이므로 특별히 와서 너를 시험해 본 것이다. 네 마음이 불속의 달과 같아서 더럽힐 수가 없구나.」 하고는 훌연히 멀어져 갔다. 이 때 하늘에서 하늘 꽃이 비 오듯 내리고, 땅이 크게 진동했다. 이 날 태수(太守) 맹공(孟公)이 새벽에 일어나 밖에 나왔더니, 훌연히 남쪽에 상서로운 구름이 엉겨 있고 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는데, 구름 아래에서는 음악 소리가 은은히 들려 왔다. 하도 기이하여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찾아가 스님을 만나, 보현보살이 스님을 시험해 보고 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태수는 곧 이 사실과 스님의 도행을 나라에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칙명으로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법화사(法華寺)라 하였다. 때는 진(晉)나라 안제(安帝)의 의희(義熙) 13년(서기 417)이었다. - 최명해(총지사)

생활속의 밀교

진언 수행의 목적과 공덕 (2)

『대일경』에서는 삼밀수행 가운데 진언수행이 으뜸이라고 교설하고 있다. 이러한 최상승행의 진언수행에는 어떤 공덕이 있을까? 진언수행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공덕도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출세간적 성취공덕이요, 둘째는 세간적 공덕이다.

▶ 출세간적 성취공덕

『대일경』권 제1 「인만다라구연 진언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진언공덕을 설하고 있다.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습하는 모든 보살은 무량의 공덕지혜와 더불어 제행을 수습하는 무량의 지혜방편을 모두 성취한다.」고 하였다. 즉 무상보리정등각을 이루는 수행방편이 진언행이요, 보리의 증득이 바로 진언의 공덕이란 것이다. 그것이 곧 실지(悉地)의 증득이다. 이를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이 교법을 알면 당연히 모든 실지를 얻게 된다. 진언을 행자가 확실하게 사유하면 마땅히 불교의 구를 얻게 된다. 만약 이 진언도를 믿으면 모든 공덕법을 마땅히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깨달음과 성불을 목표로 하는 수행인 것이다. 『대지도론』에서는 「이교도의 주술신앙이 단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반해, 반야비라밀의 주문은 온갖 집착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언수행은 성불을 이루고자 하는 최상승의 수행방편이며, 나아가 진언수행 그 자체가 불(佛)의 경계(境界)라고 말할 수 있다.

▶ 세간적 성취공덕

『대일경』권 제2 「인만다라구연 진언품」에서는 진언수행의 세간적 성취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능히 일체의 희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고, 업생을 정제한다. 온갖 장애를 주는 악한 형상의 모

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적이 침입하면 스님들이 법회를 열고 진언을 외웠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여 외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다. 진언수행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가 들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귀의하며 그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늘 진언을 외우면 열불이나 예불을 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어 자연히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다라니경에서는 설하고 있다.

▶ 진언의 공덕은 크다

출세간적 성취와 세간적 성취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출세간적 성취공덕을

진언 속엔 수많은 불보살이

든 나찰을 모두 퇴산함은 진언을 영송하는 힘 때문이다.」고 하였는데, 이 경문은 바로 진언영송의 위력과 공덕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진언을 외우고 그 문자를 관하면, 진언상응의 공덕을 가히 얻을 수 있는 고로 진언으로 즉신성불의 개오(開悟)를 증득함과 동시에 또 능히 세속의 원망(願望)을 성취케 된다.

『대일경』권 제1 「인만다라구연 진언품」에 보면, 「이 무상구를 진언구세자가 행하면, 모든 악취를 끊고, 일체의 고가 생겨나지 않으며, 만약 이와같은 행을 수습하면 묘혜가 깊어지고 부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진언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공덕이 악취제거와 고의 소멸이라는 세간적 성취와 함께 지혜를 얻는 출세간적 성취에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1차적으로 진언을 외우면 현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경전에서는 설하고 있다.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화재, 수재, 관재, 도재, 질병, 황사, 흉작, 외침 등 여덟가지 팔난(八難)을 비롯한 일체의 재난으로부터

음과 같다. 첫째, 무량의 공덕지혜와 지혜방편을 성취케 한다. 이를 「무상정등각」 또는 「무상보리정등각」이라 한다. 둘째, 온갖 집착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셋째, 진언을 외우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되어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다. 결국 출세간적 성취공덕이란 곧 성불을 뜻한다. 밀교적으로 말하면 실지성취(悉地成就)인 것이다.

다음은 진언의 세간적 성취공덕이다. 첫째, 일체의 희원(希願)하는 바를 만족시키고 업생(業生)을 정제(淨濟)한다. 둘째, 진언을 외우면 일체 재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즉, 진언상응의 공덕을 가히 얻을 수 있는 고로 진언으로 즉신성불의 개오(開悟)를 증득함과 동시에 또 능히 세속의 원망(願望)을 성취케 된다.

셋째, 진언을 외우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즉, 모든 악취를 끊고, 일체의 고가 생겨나지 않으며, 묘혜가 깊어지고 부동하게 된다. 세간적 성취공덕이란 바로 소원성취와 재난소멸을 뜻하고 있다.

법경(법정승/정각사)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두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데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가 두려워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갖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매가 문울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 총지문에

## 백치 아다다



허성택 동해중 1학년 1반

『백치 아다다』라는 책의 걸 표지는 어느 여자가 땅에 앉아서는 발버둥치는 장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못한 채 싹씩 비는 순수한 아이였다. 이런 아다다를 부모는 귀찮게 생각해 빨리 시집 보내려 했다.

결국 아다다는 양반이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그 집에서는 아다다가 무척이나 귀한 존재였다. 먹고살기도 힘든 집에 입이 하나 더 늘었는데 뭐가 좋겠냐 싶겠지만 아다다로 인해 먹어야 할 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식량이 늘어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다다 집에서는 아다다를 빨리 시집보내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양반의 집에 매달 쌀과 입을 것을 대주는 것으로 결혼을 시켰다. 지금으로 보면 정략결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5년 뒤 아다다는 이 집에서도 쫓겨난다. 시댁 집안 형편이 점점 나아지자 아다다의 남편은 말도 잘 못하는 아다다가 싫어 집을 떠난다. 그동안 아다다 덕에 먹고 산 것을 잊지 않고 아다다를 고평개 생각하

던 시부모님들도 그 적이 마음에 들어 아다다를 내쫓아 버렸다.

갈 곳을 잃은 아다다에게 오랜 친구인 수룡이 와서 자신의 자신과 도망가 살자고 했다. 이 친구는 거의 10년 전부터 아다다를 마음에 두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수룡은 너무 찬한 신분인 자신과 꽤 높은 양반의 자녀인 아다다와 맺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아다다가 갈 곳을 잃고 자신에게 올 때 까지 때를 기다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다다를 완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다다와 혼인을 하게 되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한 것이다. 또한 신분이 찬한 자신에게 아름다운 색시를 얻는 것은 어

다. 자신의 집에 돈이 많고 첫 남편의 집안이 잘 살지 못 할 때에는 자신을 잘 대해 주다가 집안이 살만해지니 자신을 내쳐버렸으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수룡은 아다다에게 뛰어들고 바다 위에 떠있는 돈을 본 직후 아다다에게 발길질을 하여 영원히 바다 속으로 가라앉혔다. 아다다와 돈이 바다 아래로 사라진 뒤 수룡은 통곡을 하며 울었다.

나는 수룡의 울음이 아다다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한 후회의 의미보다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은 것에 대한 서러움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첫 남편과 수룡은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또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다다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물질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요즘에는 정신적인 행복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책의 작가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고자 결국에는 아다다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든 것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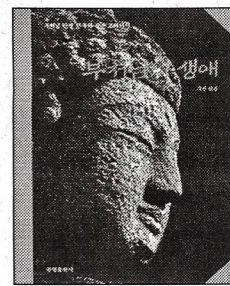
##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렵다고 생각해 미모 때문이 아닌 그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일꾼으로써 아다다를 사랑했다. 이런 줄도 모르는 아다다는 수룡과 결혼을 했고 둘은 『신미도』라는 섬에서 행복하게 사는 듯했다.

하지만 『신미도』에서 지은 농사를 통해 수룡에게 돈이 많이 생긴 것을 알게 된 아다다는 수룡이 잠들어 있을 때 그 돈을 바다에 뿌려버렸다. 이것은 자신과 수룡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아다다는 지금까지 살면서 시련을 겪은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불법을 퍼신 진정한 이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여 성불시키기 위하여 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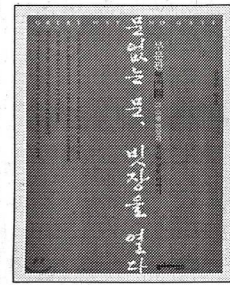
세계에 굳이 하열한 인간의 몸을 받아 나오셨을진대, 성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설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최상승 대법은 무엇인가?

### 문없는 문, 빛깔을 엮다

김성우 지음/ 클리어마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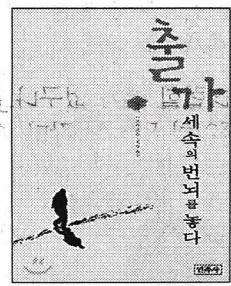


이 책은 한 수좌 스님이 약 10개월 동안의 무문관 생활에서 겪은 소박한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적고 있으며 참선 중에 겪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기록한 귀중한 기록이다. 하지만 수행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의 양이

짧아지고 급기야 10여개월 만에 중단되고 만다. 이는 모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사교입선의 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이제 문 없는 문, 빛깔을 엮기 위한 한 구도자의 숭고한 수행일기를 오늘 대한민국에 최초로 공개한다.

###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

시시키시즈카 지음/원영 옮김/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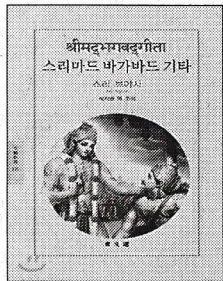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는 붓다시대의 승가를 현존하는 팔리울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재조명한 책이다. 당시의 승려들이 정말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승려들의 활동(결식, 수계, 소입 등) 및 활동영역(공간/건축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러한 승가의 실제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승가의 기본윤령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현존하는 불교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인도의 승가생활에 대한 저서 가운데 가장 알기 쉽고 적합하게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손쉽게 읽을 만한 책이지만, 자료의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어 울장연구의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 이달의 추천도서

### 반야심경 진해

유정석지음/ 유정석 옮김/ 명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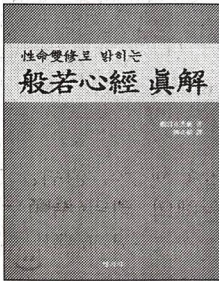
스리마드 바가바드 기타는 인간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극단적인 전쟁의 상황 안에서 절대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경전이다. 또한 한계된 인간의 의식을 한계 없는 신성 의식으로 이끌어 주는 데 있어 가장 전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전이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을 통하여 삶의 안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아왔다. 바가바드 기타는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엔 베다를 정립한 성인 브야사에 의해서 씌어졌다.

이 경전 안에는 우파니샤드의 직관적인 지혜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인도의 여섯 수행 체계인 다르사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방식의 요가와 명상 수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 부처님의 생애

주선 지음/ 중명 출판사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 불교의 존재 목적은 일체 중생들의 성불에



〈반야심경 진해〉는 간단하지만 말씀하신 가르침의 구결이 자자마다 진전이니 진실로 불초의 의발이며 감로법문이라고 하겠다.

금강경 진해와는 서로 결과 속이 된다. 금강경의 요체는 사상을 공개하고 육근을 지키고 육진을 맑게 하는데 있다.

육진이 맑지 않으면 육근을 지키기가 어렵고 사상을 비우기가 어려우므로 오온이 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고역을 구제하는 반야심경은 먼저 사람들에게 오온을 공개해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 반야심경은 기존의 반야심경 해석과는 전혀 다르니 성과 명을 함께 닦는 선도의 쌍수파의 주석과 흡사하며 아울러 티벳의 서장밀교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 스리마드 바가바드 기타

스리브야사 지음/ 박지명 옮김/ 동문선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다 향**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어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기획 특 집 신임 원승 통리원장에 듣는다

“일선사원 의견 충분히 수용, 종단 화합 구현”

▶ 앞으로 종단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또 중무행정을 어떻게 꾸려 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대로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일선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어려운 점을 최대한 해결해 주고, 스승은 포교에 전념하고 교도들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중무행정의 사업 중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통리원장에 취임한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무행정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역점을 뒀어야 할 사업은 사회 복지센터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집행부에서부터 복지물색 작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에는 반드시 노인 교도들을 위한 양로시설과 수행공간을 겸비한 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 올 한 해의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지종에는 태장계, 금강계 양부만다라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원만 봉안되어 있을 뿐 전 사원에 봉안되어 있지 않아 불단의 통일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다라를 봉안할 수 있는 사원은 봉안하도록 하여 불단의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 불교계를 보면 신도들의 고령화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도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는 기독교 등 타종교들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적극적인 포교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들이 불교에 유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급속히 이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포교에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승직자들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로도 지속할 것이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현대적 포교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보화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의사전달이 신속 간편해 지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종단에서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온라인 포교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가족법회, 청년회를 구성하여 인간성 상실, 소외감 등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포교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매월 총지종보와 위드 다르마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각 사원별 통신원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난 통리원장 이. 취임식에서 전임 통리원장이 통리원장 임기 3년은 너무 짧다며 임기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문제는 승단의 여론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해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거론되면 오히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불자들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시력이 늘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교는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이란 내안에 숨겨 있는 자성불을 깨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성불을 깨치기 위해서는 용맹정진 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없는 이론과 교리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을 자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용맹정진하여 해탈을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대담 정리: 지정 정사

양로시설과 수행공간 겸비한 복지센터 구상 “바쁜 일상 속, 자신 바라보는 여유 가져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 남달당 등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여생을 불법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불교계에서는 젊은 도제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에서는 젊은 도제를 양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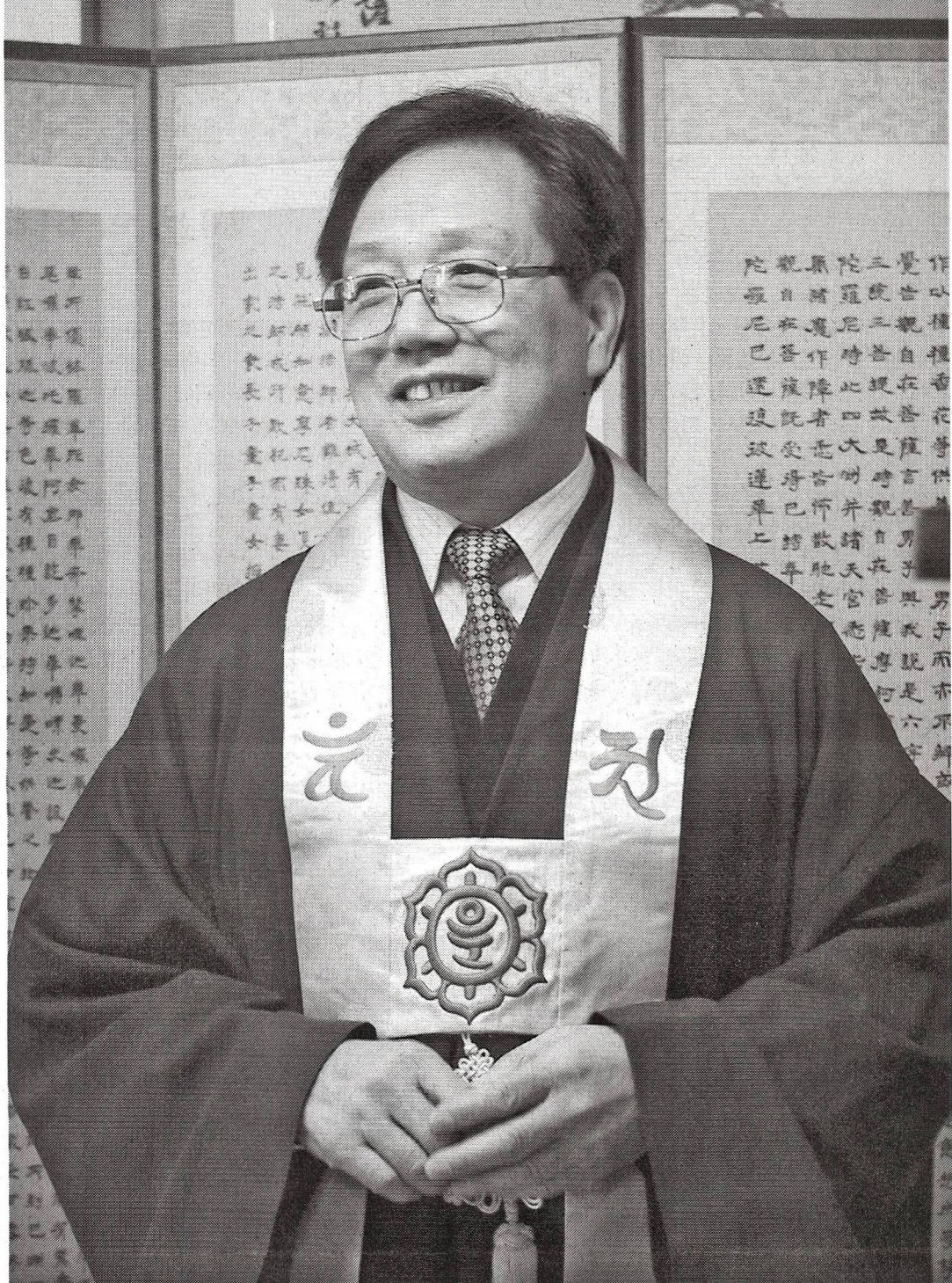
-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도 그렇듯이 훌륭한 인재는 조직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훌륭한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그 단체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지종에서도 젊은 도제 양성을 위해 매년 일정 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종단의 종사자와 교도 자녀들에게 도제 양성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5명의 젊은 중무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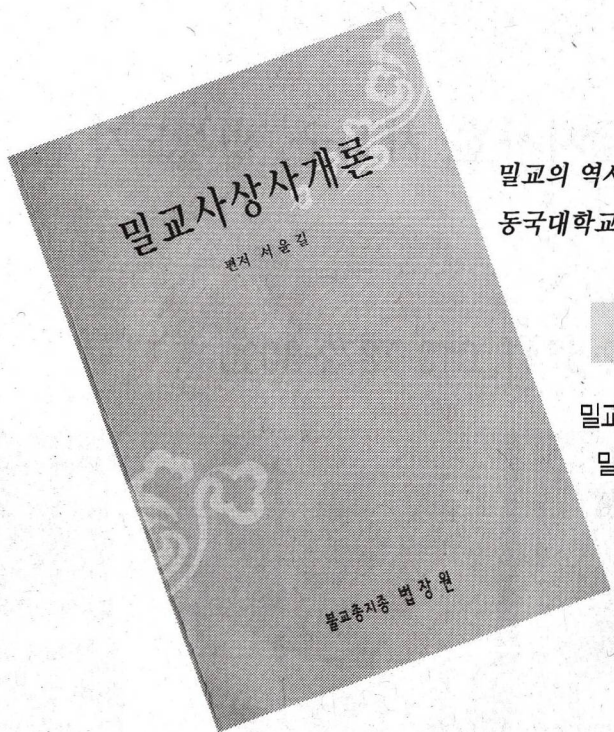
◇2월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



총지종 연중 행사 계획표

- 1월 : 신년 새해불공
- 2월 :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일, 상반기 49일불공 입재
- 4월 : 상반기 49일불공 회향, 춘계 강공회
- 5월 :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봉축법회, 하반기 49일불공 입재
- 6월 : 한일불교 교류대회
- 7월 : 하반기 49일불공 회향, 청소년, 어린이 수련법회
- 8월 : 경로법회
- 9월 : 종조 멀도절 추선불사,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기념일
- 10월 : 추계강공회, 한·중·일불교교류대회
- 12월 : 창교절

『밀교사상사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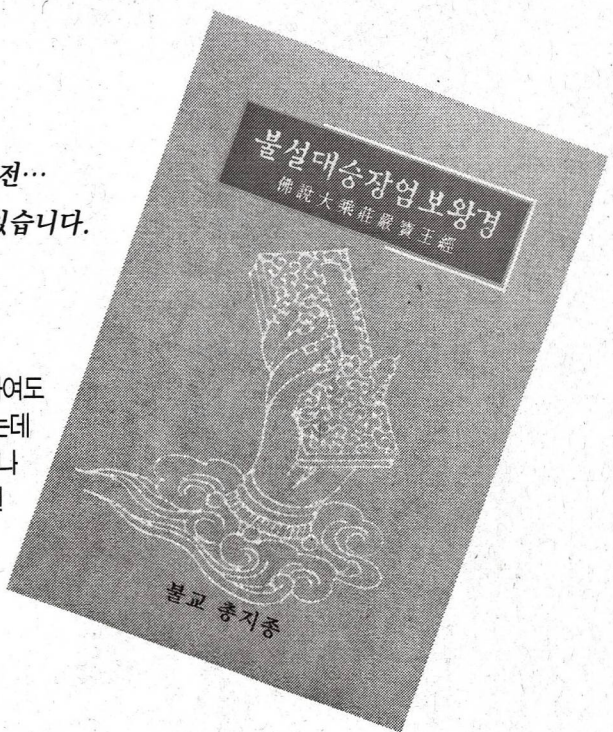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훬>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MBC "9시 뉴스 정정보도 어렵다"

## '오보' 인정...'면피용 사과' 지적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스님(왼쪽)이 MBC 최문순 사장을 만나고 있다.

월정사와 도피안사의 문화재보수비 집행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던 MBC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한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밝혀 '면피용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MBC 최문순 사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사장실에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스님 등 총무원 방문단을 맞은 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다. 불교를 음해할 어떠한 의도

도 없으며, 오보가 있으면 내용 확인 후에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실무자들을 통해 사실확인을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월정사 재무국장 법상스님은 취재과정에서 촬영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촬영한 점에 대해 "담당기자의 비 윤리적인 취재방식과 잘못된 제보자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다"면서 "불교 전체의 명예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를 당한 개인 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관련 책임자인 신용진 보도본부장은 "취재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 확인하여 강력히 조치 하겠으며, 내용이 지나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본부장은 "정말 의도가 없다"고 강조해 "불교 전체를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려한다"는 교계의 정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과 MBC의 실무협약에서 보도국 정형일 사건팀장은 "(아침 뉴스인)뉴스투데이 방송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기사가 직접 출연하여 정정하는 형식으로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데스크, 뉴스 24'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쉽지 않는데, 먼저 담당기자(강연섭)의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월정사와 도피안사는 물론 조계종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라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이해적으로 강한 어조로 오보임을 주장하고 있어 MBC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를 통한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밝힌 것은 '면피용 사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 수목장, 찬반 주장 엇갈려

## 불교학연구회, '불교장례문화...' 워크숍



◇'불교 장례문화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수목장(樹木葬).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이 장례문화의 적절한 대안인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 스님)가 2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불교 장례문화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수목장의 적절성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달수 창원전문대 교수는 '수목장의 유형과 발전방안' 발표에서 외국의 수목장 사례들을 검토한 뒤 '한국형 수목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목장의 장점으로 △자

연회귀(自然回歸) 정신 △친환경성과 추모의 대상 존재 등을 꼽았다. 특히 "산림보호의 입장에서 볼 때 수목장이 가지는 의미는 육림(育林)에 의한 입산 자원의 생산과 부차적으로 장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한국형 수목장 모형은 기존 공원묘지를 재활용하거나 일반 분묘를 평분하여 그 위에 조성하는 '묘지형'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을 고려하는 산림형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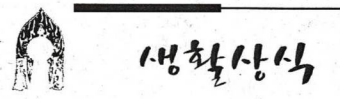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은 수목장이 한국 실정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장 제도의 도입과 정책방향" 발표에서 이 팀장은 수목장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인 자연장 제도의 도입을 역설했다. 이는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팀장은 수목장이 잘못 도입될 경우 산림훼손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산불과 병충해 등이 찾아 우리나라 산림이 수목장을 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으며, 수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팀장은 자연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팀장은 자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친화적이어야 하고 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며 다양한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어 "생활공간을 활용한 자연장은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관계전문가와 종교계 등과 긴밀히 상의해 보다 장기적인 자연장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현동 건양대 교수는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위한 제언' 발표를 통해 종교계의 장례문화운동을 비롯해 △생전의 장례준비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문화 조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장법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삼푸 샘물로 웃김과 소매를 부분 세탁하기

화장품 가게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무료로 주는 삼푸 샘물을 세탁에 활용한다.

원래 두피의 피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웃김이나 소매, 양말 등의 찌든 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세정력이 강해서 적은 양만 묻혀서 솔 등으로 가볍게 문지른다.

### ▶머물이 묻었을 때 제거하는 방법

머물이 묻었을 때는 즉시 전분풀을 바른 뒤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머물이 분리되면 물로 풀을 씻어 내면서 계속 문지르다가 세제로 뺀다. 이렇게 하면 얼룩이 말끔하게 빠진다. 액체 플로도 같은 효과가 있다.

### ▶셔츠나 블라우스 주름없이 말리는 방법

셔츠나 블라우스를 말릴 때에는 아랫단과 깃, 소매부분을 잡아 당겨 빨래 집게로 잡아 둔다. 빨래집게가 추 역할을 하여 옷이 마르는 동안 천이 팻팻한 상태를 유지한다.

### ▶담배 냄새 제거하려면

냄새는 수분에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물에 적서 꼭 수건을 공봉에 휘두르면 담배 연기와 냄새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손님이 갑자기 찾아 왔을 때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다.

### ▶플러그에 낀 먼지제거하는 방법

플러그에 낀 먼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필름통 뚜껑에 칼 집을 넣어서 가운데를 도려낸 뒤 플러그를 끼우면 먼지가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새 구두 편하게 신는 방법

가죽이 딱딱해서 발뭇꿈치가 쓸릴 우려가 있는 새구두를 신기 전에는 뭇꿈치가 닿는 부분에 고흥비누를 칠해 두면 편하게 신을 수 있다.

## 진각종, 창종60주년 기념사업회 본격 가동

### 집행위원장에 총무부장 회성 정사 임명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회(봉행위원장 회성, 이하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념사업회 봉행위원장 회성 정사는 2월 1일 집행위원장에 총무부장 회성 정사, 자문위원장에 교육원장 경정 정사, 총 14명의 추진위원들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차창종의 신념을 갖고 기념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와 더불어 실무추진기구로 기념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호당 정사), 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지정 정사), 성역화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무의 정사) 등 총 3개 분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분과는 각종 기념사업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고 행정분과는 기획, 회의 및 재정과 운영을 담당한다. 성역화사업분

과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가칭)진각문화전승관 콘텐츠기획 및 개발과 조성 등을 맡는다.

한편 자문위원에는 종의회의장 해인 정사, 사감원장 겸 부산교구청장 해명 정사, 前 총리원장 효암 정사, 서울교구청장 수성 정사, 대구교구청장 관천 정사, 대전교구청장 휴명 정사, 경주교구청장 상재 정사, 포항교구청장 무의 정사, 전라교구청장 직무대행 도진 정사 등을 위촉했다.

추진위원회에는 경당(교육부장) 경일(진각대 사무처장) 정효(총무국장) 원암(기획국장) 법경(포교국장) 원주(건설국장) 덕운(전산국장) 정사와 법정(지원심인당 주교) 덕정(법륜심인당 주교) 일학(선해심인당 주교) 현수(독도심인당 주교) 정훈(북전심인당 주교) 효명(교석심인당 주교) 의신(시복심인당 주교) 정사 등이다.

## 템플스테이 예산 150억원 4배이상 증액

### 정부 '한국전통문화 선양' 인정

문화관광부의 한류확산 브랜드 사업 중의 하나인 사찰체험프로그램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매력적인 한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액 35억원보다 4.2배 증액한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운영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시설보강비는 25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상설 국제선체험센터건립비 50억원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산사체험(템플스테이) 확대 시행이 해외관광객 유치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2003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템플스테이는 참여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연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매년 참가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2004년 3만 여명이던 내·외국인의 템플스테이 참여자수는 2006년 내국인 6만 여명 외국인 9만 여명으로 2~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참여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1회 이상 참여경험자들이 많아 한류확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이석식 차장은 "템플스테이가 한류상품으로까지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용한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면서 "매년 늘고 있는 템플스테이 참여자 숫자의 증가도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전통사찰 문화탐방

# 해동화엄종찰 소백산 부석사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고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가 아름다운 무량수전.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 해동 화엄종 종조 의상국사가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이다. 1916년 해체 보수 시 발견된 목서명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무량수전 등을 중창하였으나 공민왕 7년 적의 병화를 당하여 우왕 2년 무량수전이 재건되고, 우왕 3년(1377년) 조사당이 재건 되었다.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경내에는 신라시대 유물인 국보 제 17호 무량수전 석등을 비롯해 국보 45호 소조여래좌상, 국보 46호 조사당 벽화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부석사가 들어선 터는 그리 넓은 편이 아니다. 그나마도 구름지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석사에 들어서면 국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솔길을 따라 절에 들어서면 높은 석축단에 의하여 구분된 터에 드문드문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뒤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내려가는 길에는 건물 지붕 위로 보이는 전면의 조망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석양이 누워거릴 무렵 안양루 쪽에서 멀리 도솔봉 쪽을 바라보면 펼쳐 있는 산맥의 연봉들이 장관을 이룬다. 초점이 되는 도솔봉 오른쪽으로는 아스라이 죽령이 보인다. 가히 대단한 경승지라 할 수 있다.

부석사의 주불전으로는 아미타여래를 모신 전각이 있다. 아미타여래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로도 불리는데 '무량수'라는 말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건물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화엄종은 비로불을 주불로 모시는데 화엄종찰인 부석사 주전에 아미타여래를 모신데에는 사연이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 당시 웅장한 비로부처님을 모셨는데 수일도 안 돼서 번번이 무너져 내렸다 한다. 그러길 여러차례. 한 번은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이 곳은 아미타불을 모실 정토계이라고 했다는 것. 그 이후 화엄도량 부석사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지게 됐다.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인데 평면의 경우 건물 내부의 고주 사이에 형성된 내진 사방에 한 칸의 외진을 두른 형식을 취했다. 기둥 사이의 주간 거리가 크고 기둥 높기도 높아 건물이 당당하고 안정감 있게 지어졌다. 지붕은 팔작 형식인데 지붕의 물매는 후대 건물에 비하여 완만하다. 예로부터 건물의 구조는 단면에 위치한 도리의 수를 셈하여 말하는 데 이 집은 소위 9량집으로 외쪽을 제외한 도리가 9개나 되는 큰 건물이다.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의 법식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 주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유의하여 볼 부분은 평면의 안허리곡(曲), 기둥의 안솔림과 귀솟음, 배흘림, 향아리형 보 등의 외장 수법이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착시에 의한 왜곡 현상을 막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고도의 기법들이다. 내부 서쪽에는 불단과 화려한 단장을 만들어 고려시대에 조성한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제45호)을 모셨다. 협시보살 없이 독존으로만 동향하도록 모신 점이 특이한데

교리를 철저히 따른 관념적인 구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불상을 동향으로 배치하고 내부의 열주를 통하여 이를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불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엄하고 깊이감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진입하는 정면쪽으로 불상을 모시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는 드문 해결 방식이다.

부석사를 논하고자 하면 **배농**을 수 없는 부분이 창건주 의상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다.

의상스님은 김씨로서 아버지는 김한신(韓信)이고, 신라 진평왕 47년(625)에 태어나 78세(702)에 입적하였다. 의상은 황복사(皇福寺)에서 출가하여 8세 위인 원효(元曉) (617-686)스님과 함께 입당 유학을 시도 하게 된다. 25세(650)때의 육로를 통한 제1차 시도는 실패하고 다시 해로를 이용하여 36세(용삭 원년 신유, 661)에 입당하게 된다.

이때에 원효는 도중에서 발길을 돌리고, 의상은 당시 신의 배에 몸을 위탁하였다. 662년 지상사 지엄(智嚴) (602-668)화상을 찾아가니 특별한 예로 맞았다 한다. 그 후 의상스님은 화엄교학의 진수를 전수하였고 지엄스님의 입적 3개월전인 7월 15일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인가를 받았다. 의상스님은 스승의 입적후 당 고종의 신라 침공을 알리기

위해 귀국을 앞당기게 된다.

그후 의상은 신라로 돌아와 태백산에 부석사를 비롯하여 상당 수의 사찰을 창건하고 화엄10찰을 중심으로 교화활동을 펴 나갔다.

의상화엄사상의 특징은 그가 서민 불교적인 미타정토 신앙을 중요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부석사에 무량수불을 모신 것이라든지 동해 낙산에 관음진신주처의 도량을 개설하는 등, 의상은 화엄사상에 미타 관음신앙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의상화엄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상의 실천적 생애와 그가 끼친 발자취는 당시 신라인들에게 있어서 금산보개 여래의 화신으로까지 받들게 됐다.

### 의상대사를 사랑한 선묘낭자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절에는 의상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여인의 그림을 모신 조그만 건물이 무량수전 뒤편에서 답사객을 맞이하고 있다.

의상은 '돈 바위'가 절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해서 절 이름을 부석(浮石)사로 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부석사의 무량수전 뒤에는 '浮石(부석)'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선묘 용이 변화했던 바위라고 전한다.

선묘의 사랑은 국경도 신봉도 초월한 짝사랑이었지만, 온 몸을 던져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용이 되어 서까지 보호한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너무나 가벼운 사랑이 유행하는 오늘

날 세태에 교훈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처럼 부석사는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경치와,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어우러진 반드시 한번쯤은 답사할만한 절이다.

-이인성 각자

### — 각도반 이야기

봉황산 자락 700m고지에 위치한 명찰, 우리나라최고의 목조건물인 부석사의 무량수전.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백팔계단을 산보일배하는 마음으로 오르면서 함께한 도반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파스름, 숙연함이 내마음 절로 웃음을 여미게 하는데...

-심일화

진정한 수행자였던 의상의 치밀한 구도아래 이루어진 부석사!

일주문을 지나 맨 뒷단 무량수전에 이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락정도를 향해 나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이다.

-일여심

무량수전을 바라보면 선조들의 건축미에 반한다.

그 옛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또한 석축을 보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돌로 만든 축대를 쌓았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빛깔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대법신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소백 능선들.

### 이달의 사찰음식 (15)

#### ▶참가죽합살음식이



**재료**  
말린 참가죽 100g, 찹쌀가루 2컵, 다시마 약간, 무 200g, 물 10컵, 청장 10큰술

**만드는 법**  
① 참가죽은 불철에 새순이 나오면 채취한 후 바로 삶아서 말린 다음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보관해 둔다.  
② 참가죽을 무와 다시마를 넣고 푹 삶는다.  
③ 찹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넣고 익 반죽하여 음식이를 만든다.  
④ 무와 다시마를 건져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는다.  
⑤ ②에다 ③을 넣고 음식이가 떠오를 때까지 끓이다 청장으로 간을 한다. 죽을 부어서 얇게 지져낸다.

▶스님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사발하고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드시는 별식이다.

#### ▶말린취나물



**재료**  
취나물 200g, 청장 2큰술, 들기름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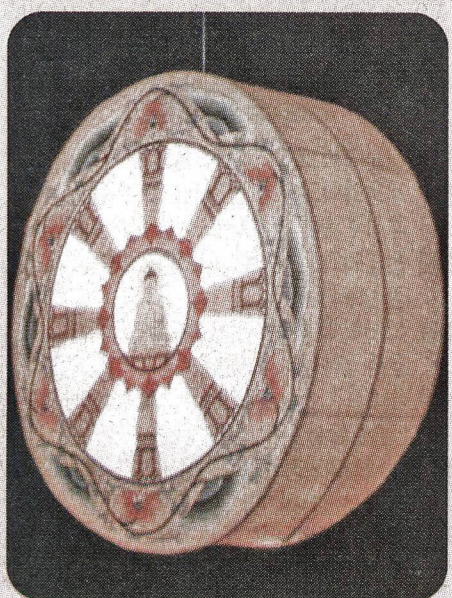
**만드는 법**  
① 취나물을 더운물에 담갔다가 약간 불에서 푹 무르게 삶아 깨끗이 헹구 물기를 꼭 짰다.  
② 취나물에 간장, 들기름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무친 다음 팬에 넣고 서서히 볶아 식힌 후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버무린다.

## 연등 공모전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에 사용할 총지종의 특색있는 연등 제작을 위해 총지종 교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종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통양식의 참신한 연등을 디자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작에 대해 소정의 공모료를 드리겠습니다.

- 대상 : 0명
- 금상 : 0명
- 은상 : 0명
- 동상 : 0명
- 접수 마감 : 총기36년(불기2551년) 3월 31일

**보내주실곳**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번지 불교총지종 통리원  
연락처 : 02-552-1080~3



# 정각사 신행모임 기지개 동해중 37회 졸업식 거행

## 단월회 청년회 잇단 구성

## 총 졸업생 수 15,778명



◇정각사 단월회 구성을 위한 회동.

부산 정각사가 남자 교도 모임인 단월회와 청년회를 구성하고 포교와 신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각사(주교 법공)는 지난달 11일 정각사 회의실에서 단월회(남자 교도모임)를 모임을 갖고 내달부터 정식 모임과 등반, 야유회,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단월회는 총지종 남자 교도를 단월 또는 각자라 부르며, 남자 교도들로 구성된 모임을 단월회라 부른다.

정각사 단월회는 이미 수십년 전 창립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명맥이 끊어져 있던 상태다. 이번 모임은 정각사 주교 법공 정사가 단월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단월회의 활성화를 통해 남신도 수를 배가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또 서울에서 파견한 법경 정사와 도현 정

사도 이번 연이신행모임 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월회에 참석한 한 교도는 "그동안 남자 교도들의 수가 적어 사찰 일에 수동적인 점이 없지 않았다"며 "단월회가 구성되면 불심 깊은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각사는 이와함께 청년회를 재창립하고 청년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회 결정인 회장(28)은 "적은 회원 수지만 청년회 법회가 이루어 진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며 "교도 자녀 중심으로 회원을 늘리는 한편 젊은 불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불심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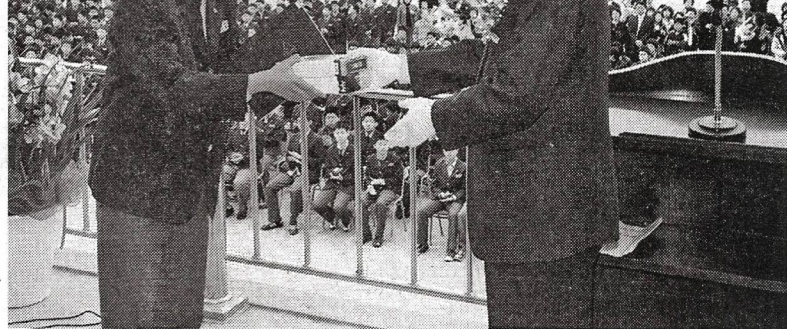
교가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운동장에서 제 37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개혁신언과 국민의례, 학교 연합 보고, 졸업장 및 상장 수여, 학교장 회고사, 이사장 치사, 통송사,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학교법인 대동학원 김현우 이사장을 비롯해 법공 정각사 주교, 정관호 학교운영위원장, 권점숙 학부모회장, 김수호 총동창회장, 김병준 전임 교장 등 학부모, 가족들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대동학원 김현우 이사장은 치사에서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남을 올바르게 하라. 다루기 어려운 자기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쳐 두게 하라는 법구경 구절을 인용하며 "나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허물부터 고쳐나가는 습관을 기르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중 박수현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평소 우리 동해중학교에서 갖고 닦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결코 잊지 말고 가슴에 담고 생활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늘 최고보다는 최선을 성실과 양심, 질서와 인정을 가르쳐 오신 우리 선생님의 은덕도 결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동해중학교의 총 졸업생 수는 이번 졸업생들을 포함해 모두 15,778명이다.



# 승가대 안암학사 교육시설로 변경 추진

## "제금만 연 6천만원 ... 수익성 낮아"



◇현재 개인업체에 임대되어 사설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암학사.

사설 고시원에 임대중인 중앙승가대 안암학사가 불교 교육도량 시설로 변경이 추진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지관)은 12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제 7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재 수익시설로 인가되어 사설업체가 임대,

고시원으로 쓰고 있는 서울 안암동 안암학사를 법인 고유 목적시설인 교육시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진유통과 맺은 안암학사의 임대계약기간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암학사를 대학원 · 불교

사회교육시설 및 연구기관 등 중앙승가대 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교육부 인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승가대 법인사무처는 법진유통측에 명도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지난해 12월 6일 법인이사장 명의로 발송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도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암학사는 8천여평 대지에 건평 3천5백여평으로 현재 법진유통에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되어 고시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암학사는 2001년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으로 건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다 당시 이사장 정대삼님이 2001년 8월 20일 법진유통과 5년간 임대계약을 맺었

다. 당시 계약조건은 보증금 5억5천만원에 임대료 월 1500만원이었는데, 임대기간은 5년이었다. 그러나 이후 임대보증금을 2억원으로,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낮춰줬다.

계약 당시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임대보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총무원 청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안암학사의 교육시설 전환 추진은 수익시설 운영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 용도가 수익시설로 되어 있어 승가학원은 지난해 지방세 및 국세로 6천만원을 납부했으며, 매년 지방세 및 국세가 10~20% 증가하고 있어 수익시설로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차인인 법진유통은 시설투자비와 관리금 수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육시설 전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신행체험 38

## "지극한 마음 내면 이뤄져요"



이옥희 보살 (충지사 교도)

▶총지종과 인연 맺게 된 계기는?

28세때 울산 실보사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고모님의 권유가 있었고 친정 어머니도 부산 관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총지종 수행법에 대해서  
현교에서는 스님들이 대신 불공을 올려 주는 예가 많지만 우리 수행은 품소 정진해서 깨닫는 것, 나아가서는 이쪽 이쪽으로 즉신성 불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송과 대승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밀법수행이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큰 서원이나 다급한 소원이 생기면 24시간 혹은 7일간 달아서 불공을 드립니다. 이번 새해 불공에도 총지사에서 7일간 숙식을 하며 참여했습니다. 아직 자녀들을 제도하지 못했는데 새해불공 기간에 자녀들의 입교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비는 것보다 그때 그때 한가지씩 발원을 해서 집중하는 것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같은 묵은 일을 해가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얻은 공덕이나 가피가 있다면?  
이것 저것 역경이 있었는데 무사히 헤쳐나오고 지금껏 생활을 잘 꾸려 온 것이 수행 공덕일테지요. 무엇이든 지극하게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 졌습니다.

▶수행과 불교에 대해서

불공을 하면 알아 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지는 업대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업 짓지 않고 좋은 인연과 복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구업, 실없는 말, 속이는 말, 이간질,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구업을 제일 쉽게 짓고 많이 짓는 같습니다.

▶중단에 바라는 점

예전에는 긴 불공도 많았고, 가정 불공도 많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스승님들이 즉시 불공부터 해 주시고 마주 앉아 고충을 들어 주고 해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좀 달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젊은 행자들이 많지 않아서 염려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유희와 향락거리가 즐비한 세태로 인해 절에 나와 수행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단 차원에서 '중생입교정진' 같은 대중소원 불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 만다라 세상

버렸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혈연과 향관(鄉關)이 망막 깊숙이서 점철되어지는 것은 선객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비정하기에 누구보다도 다정다감 할 수도 있다.

구정인 오늘  
은 쉬는 날이다. 뒷방이 만원이다. 여러 고장 출신의 스님들이라 각기 제 고장 특유의 설 차례와 설빔 등에 관해 얘기들을 나눈다. 어른이 갖드니 무척이나 허전하다. 어제는 세모여서 허전하다 하였지만 오늘은 정초인데 웬 일일까.

고독감이 빼어 사무치도록 절절하다. 세속적인 기분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불쑥 고개를 치민다. 이럴 때마다 유일한 방법은 화두에 충실할 수 밖에. 그래서 선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열반경은 가르치고 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 그 차제만도 박찬 일이기 때문이다.> 고독할 수록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구는 또 가르치고 있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선객으로 머무는 한 아집은 공고히하고 또 충실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지객스님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연륜을 더했군요."  
"그렇게 되었네요."  
"지난해엔 제 자리 걸음도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에 제 자리 걸음이나 해야 할 텐데 별로 자신이 없군요."  
"어려운 일이지요.

평범한 인간들은 시간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빈곤해지고 분발없는 스님들은 절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나태와 위선을 쌓아가게 마련이지요. 나아가지 못할 바에야 제 자리 걸음이라도 해야 할 텐데...."

-70년대 오대산 상원사 선원 어느 스님의 일지 중에서

# 수행자는 고독해야 한다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如來)만이 그(衆生)을 제도할 수 있다는 아집까지 버려야 할까. 그래서 수보리(須菩提)는 물었다.

"어래는 여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아상(我相)에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중생을 건지나이까?"라고.

아집없는 선객은 화두없는 선객과 같다. 견성하지 못하고

#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뽀 스투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뽀 스투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대영프라자 동관2층, 뽀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총무실 보살 실내)  
홈페이지: bomstudio.com



진언행자의 가족을 찾아서 | 정심사 박옥란 교도

# “매일 매일 부처님 가피 느껴요”

공양처에서 연락이 왔다. 누가 신문기자를 찾는다면, ‘진언행자 코너 취재원과 약속한 시간은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누굴까’ 하면서 카메라를 쥔다. 웬 노보살님이 빵 한조각과 커피를 놓고 드시고 계시는데 한 눈에도 오늘 취재할 분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너무 님었으니깐.

“점심은 빵, 커피로 해결해요. 벌써 오래 됐어요. 소식(小食)도 하게 되고 식탐(食貪)도 줄고요..”

‘연세 많은 노인분들은 의례 따뜻한 밥과 국을 드시는데 이 보살님은 사고방식이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옥란(법명:수장(修藏), 85)보살. 일제시대 당시 수재들만 모인다는 경거여고를 나온 소위 인텔리 여성이었다. 졸업 직후부터 초등학교에 평생을 헌신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가르쳐야 하는 오랜 교직 생활이 몸에 밴 것일까. 어딘지 모르게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느낌이다. 여든이 넘는 분 같지 않게 활기차고 정정해 보이고.

“고교 동창회다, 제자들 모임이다, 이곳 저곳 많이 다니다 보니 고독하다거나 늙는 걸 한탄할 틈이 없어요. 제 주위에는 지금까지 일하는 동기들도 여럿이죠”

바쁘게 사는 것이 노익장의 비결인 듯, 박옥란 보살은 몸만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마음 찾는 공부를 위해서도 분주하다. 수십년 전에는 승인동 밀인사 2대 신정회장을 맡아 전법과 수행에 힘쓰고, 여든 노구인 지금까지도 상봉동 정심사로 불공을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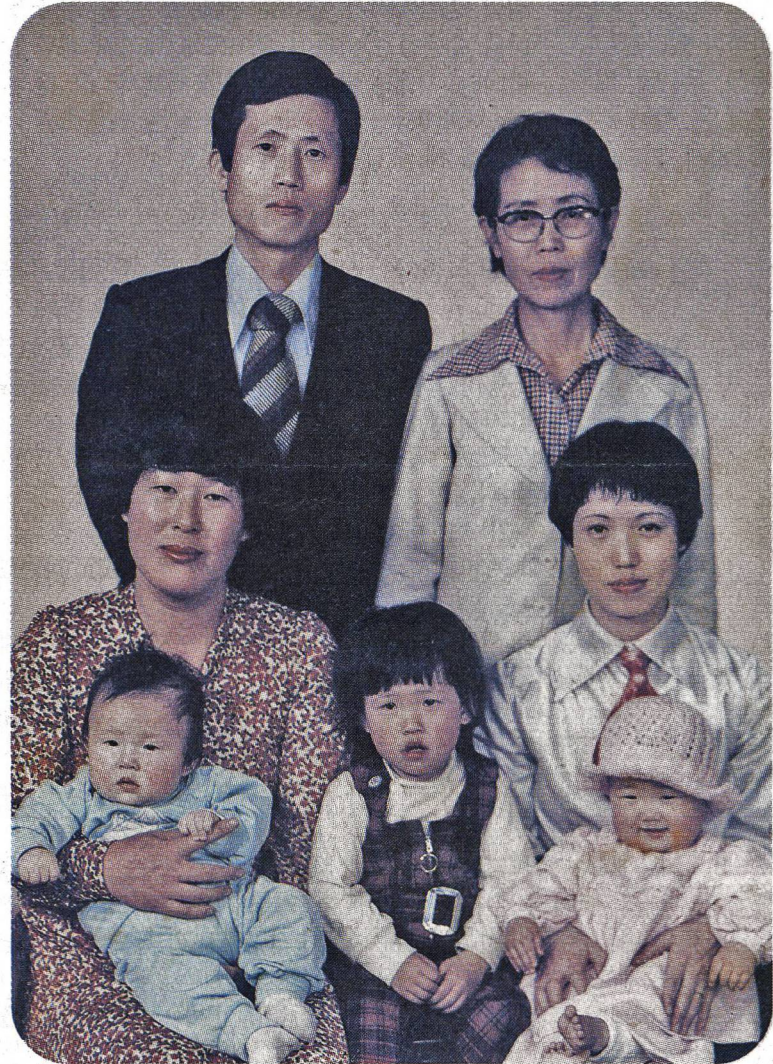
40여년을 넘게 진언 수행을 해 오고 있는 박옥란 보살은 하루도 불공을 거르는 일이 없다. 새벽불공은 물론 하루 두시간 이상은 정송한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오래 전에는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인팍으로 바쁘기 마련인 사찰 회장직을 맡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다 불공 공덕이지요. 불공으로 어려운 일도 해내고 한 평생을 잘 지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매일을 부처님과 함께 하니 은연중에 부처님의 가피가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길을 때에도 가슴을 쪽 펴고 씩씩하게 걷게 됩니다”

박옥란 보살의 이런 강한 내면은 어쩌면 어린 두 자식을 홀로 키우면서 다져지게 된 것이 있는 지도 모른다. 결혼 초기 교사생활을 했던 박보살은 말단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서울 사범대에 진학시키고 학비를 비롯한 뒷바라지를 시작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무지개빛 꿈을 꾸던 때 6·25동란이 터졌다. 남편은 그 와중에 행방불명이 됐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전장이 발발한



지 얼마 안돼 누군가 교문을 걸어 잠그고 남아 있던 학생들을 부대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곳에서 얼마동안 군사훈련을 시킨 후 전선으로 가던 중 폭격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

박옥란 보살에게 여섯 살 아들과 세 살 딸이 가 남겨졌다. 당장 생활비를 위해서 피란처인 목포에 가서도 교편을 잡았다. 당시 제자들 중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직 검찰총장도 있다고 한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전쟁통안엔 모두가 그랬지만 남편없이 어린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할 저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성의 힘일까. 두 아이는 잘 자라 주었고 큰 아이들은 없는 학비에도 일류 공과대학을 무사히 졸업했다. 그 아들이 서울 총지사 신정회 총무 이인성(시공, 63) 각자. 종단



의 대소사에는 이 각자가 꼭 있다. 모든 불공에도 빠짐 없이 참석하고, 그야말로 성실하고 모범적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사람이다. 오

번 하고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한다. ‘뇌우치고(懺), 다시 짓지 않겠다(悔)’고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의 매순간 다짐을 한다. 이와

죠. 어머니님과 오라버니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이혜성 보살은 총지종 합창단 단원으로 불음

## 일상을 여일하게 사는 게 성취 “옴 마니 반메 흠 - 참회합니다”

랜 동안 염색관련 무역업체에서 국내외를 오가며 활약했다. 요즘엔 최근 설립한 건설업체 일을 보는 틈틈이 총지사에 나와 49불공을 올린다. 어떤 성취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일상을 여일하게 살아 내는 게 성취라면 성취란다. 그리고는 소박하게 말한다.

“어머니께서 40대에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불공을 올렸습시다. 그 이후 물라보게 건강해 지셨고요. 그리고 대학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었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매달린 덕인지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됐습시다”

이 각자는 어머니보다 한 해 먼저인 64년 고교졸업 직후 상왕실리 진각종 심인당에서 진언행자가 됐다. 독실한 교도였던 둘째 이모(박옥란, 작고)의 권유가 있었다. 둘째 이모는 밀인사 초대 신정회장을 지낼 정도로 신심이 깊었다. 청주로 이주해서는 혜정사 중창불사에 앞장섰고 며느리를 입교시켜 승직자로 만들기가 지했다.

이인성 각자의 수행방법은 한 마디로 ‘참회(懺悔)와 감사(感謝)’다. 다검생래로 지어 온 업장과 현재에도 알게 모르게 짓는 일체 업장을 지심으로 참회한다. 그래서 육자진언을 한

함께 자신을 지금에 있게 한 선현과 조상, 여러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모든 인연이 인드라마처럼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자연 따뜻하고 안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게 불교의 자비심(慈悲心) 아닌가. 그래서인지 이인성 각자는 늘 온화하고 온건하다.

이런 이 각자에겐 오랜 바램이 있다. 신정회 중앙회 결성이 그것. 그 동안 여러차례 추진을 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우리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임입니다. 전국의 신정회 지회를 찾아 다니며 협의를 했는데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요즘엔 바램이 아니라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는 이 각자는 종단과 교도가 뜻을 모아 중앙회 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옥란 보살의 딸인 이혜성(자성각, 60) 보살도 밀인사 교도로 오랜 동안 진언 수행을 해 오고 있다. 내력일까. 환갑의 나이라는 게 믿기지 않게 너무 젊어 보인다.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작자수(自作自收)의 이치를 명심하고 부지런히 작복(作福)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수행이 뒤따라야 결실이 맺어지겠

을 전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매주 수요일 총지사에서 있는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노래를 하면 심신이 즐겁고 편안해져요. 부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실어 전하는 일이나 더욱 신심이 나고 행복하답니다”

40여 성상을 진언 수행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팔순 노모와 그 곁에서 아들과 딸로, 때로는 수행 도반으로 지중한 인연을 이어 온 세 사람.

일제 강점기의 엄혹한 시대, 해방 전후의 혼란기와 전쟁, 가정의 공백에서 있었을 어려움을 겪은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평온하고 다정하기만 하다.

윤우채 기자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시
- ◆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노진숙 단장 02)552-1080~3(대)

